

大學 新入生 選拔의 本質과 方向

車 京 守

(서울大 社會教育科)

I. 大學入試의 本質

대학 입학시험은 왜 실시하며 또 어떻게 실시 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지만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 없다. 경쟁적인 대학 입학시험이 없었으면 가장 좋겠으나 현재로 보아서는 그러한 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할 일은 대학 입시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입학시험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학 입시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나라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며 또 시대적으로도 변천되어 왔지만, 대학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고 그러한 것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近代的인 대학의 시초는 10세기를 조금 넘어서 이탈리아와 영국, 프랑스 등에서 발달하였지만, 어느 사회에나 그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의 대학에 해당되는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傳統社會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출생과 동시에 身分의 由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은 대학이 일정한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대학의 役割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류의 꿈을 실현하고 역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적 資質을 배양하려고 했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오늘날도 대학이 文化發展의 總本산이며, 지도자의 형성 과정이며, 사회의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학이 사회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서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대학의 학생 선발에는 부모의 社會的 地位와 신분 또는 남녀 성별이라고 하는 歸屬的인 要因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냐고 하는 성취적인 요인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그 어느 경우에도 대학 입시의 본질은 대학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제 아래에서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指導者로서의 能力 測定

대학이 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때 입학생의 選拔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나 平等主義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인간 또는 人格으로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느 의미로도 역할의 평등이나 사회적 地位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먼 훗날 사회적 지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역할에도 차이가 없는 사회가 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지 않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도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優劣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나, 민족이나 인종의 집단 안에서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사회에는 높고 낮은 사회적 지위가 위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역할도 각각 다르다.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는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문제이었다. 血緣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지위를 계승시켜 오던 일은 복잡한 產業社會가 나타나자 불가능하게 되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지위와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대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주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分配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달성하는 지식의 소유나 행동의 변화와 같은 교육의 성과는 물론 완전히 成就的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출생의 순서나 남녀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문명 국가의 대부분에 있어서 대학은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成就指向的인 기관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서 대학의 입학시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대학이 중요시하는 능력은 조금 좁게 생각하면 교육 가능성의 문제로 제기된다. 대학교육을 통한 능력의 향상은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교육 과정에 따른 학습을 통하여 실천된다. 그리고 학습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는 學業成就度의 평가에 의하여 측정되고 있다. 물론 대학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취도는 知的인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인격, 태도, 가치관, 지도자로서의 力量 등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한 정신적인 영역도 있다. 知的, 정서적, 인격적 '成就度'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육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산출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 입학시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다.

대학 입학시험의 이러한 기능은 대학 입학시험의 결과와 대학을 졸업하고 나갈 때의 產出物과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대학 입학시험의 일종의 예언적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학시험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만약 낮은 경우에는 그 豫言的 機能은 잘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입학시험 과목과 대학 졸업시의 평균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에 대학 입학시험은 대학에서의 學業遂行을 위한 교육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適性檢査'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성취도검사' 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성검사와 성취도검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입학시험은 본질적으로는 教育可能性 내지 대학교육의 적성을 측정하는 것이지 고등학교 교육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대학 입학시험의 성격이 학업 성취도 검사보다도 일종의 적성검사인 것도 이러한 성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 입학시험과 대학에서의 성취도와의 相關關係를 논의했으나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도자적인 능력의 향상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시험과 이러한 능력과의 상관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대학 졸업 후 인생과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豫言的 기능인 것이다. 대학 입학시험은 대학 생활의 성공을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인생과 사회에서의 성공이 무엇이나라는 의문을 당연히 제기하게 되지만 그 문제는 이 글에서보다도 다른 글에서 논의해야 할 성격인 것으로 생각된다.

Ⅲ. 公正성과 機會均等 保障

대학교육은 지금까지 위에서 叙述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위 및 특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稀少性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지위 자체가 희소한 것이며, 지도자 역시 사회적으로는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대학의 시설이나 수용 능력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대학 입학에 원하는 사람은 많고 대학교육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같이 同年輩의 반수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경쟁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대학의 역사와 傳統, 기타 여러 가지 要因에 의해서 대학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의 전망으로는 없애기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나라에서건 대학 입학에는 경쟁이 있기 마련이다.

경쟁적인 대학 입학시험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公正하게 실시할 것이냐는 教育機會均等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중요한 교육이념의 하나가 되어 있다. 능력을 測定한다 할지라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정당한 입학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한때는 出生과 身分에 의해서 입학이 허가되기도 했고, 또 학교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자제들이 입학되기도 했다. 그러나 능력주의를 지향하는 대학의 이념에 비추어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은 자녀의 學習能力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을 입학시킨다면 그것은 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은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능력인가를 정의하는 데에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습능력 아닌 것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늘날의 교육사회학자들은 그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地域的 差異이다.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였을 때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농촌 청소년들이 도시 청소년들보다 선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들 사이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先天的 능력의 차이라기보다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녀 성별의 차이이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서로 다르거나, 학업 성적에 體系的으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었다고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느 한쪽이 원래 교육을 덜 받아도 좋거나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의 家庭的 배경이다.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와 학생이 학교에서 이룩하는 학업성적 등이 가정적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교육의 機會均等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빈곤한 계층이나 부유한 계층 중에서 어느 한쪽이 학습능력이 선천적으로 우수하고 다른 한쪽은 열등하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어느 한쪽만 대학교육을 많이 받고 다른 한쪽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되기도 어려운 것이다.

Ⅳ. 入學試驗 改革의 傾向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 3세계의 신생 독립 국가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대학생들도 대대적으로 입학시험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新生 獨立國家의 경우 식민

지 국가에서 벗어나서 自主의인 교육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외국 것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념적으로는 脫植民의인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비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새로운 産業社會에 적합한 사회의 지도자를 대학에서 어떤 형식으로 선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관심을 모았다. 이들 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두 가지, 즉 대학교육에 적합한 능력의 測定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原理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아래에서 제시하여 우리 나라 입학시험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첫째, 프랑스의 유명한 바카로레아 시험의 개혁이다. 1808년 나폴레옹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바카로레아 시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에 의무적으로 치루어야 할 시험이다. 이 시험은 처음에는 모두 구두시험이었다가 1959년에 9개의 시험과목 중에서 외국어만 구두시험으로 하고, 나머지는 필기시험이 되었다. 그리고 1968년에는 대규모의 학생 수요가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모두 필기시험이 되었다.

바카로레아는 오랫동안 철학, 문학, 어학 등 古典的인 과목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오면서 (A) 철학, 어학, 문학 (B) 경제·사회과학 (C) 수학, 물리학 (D) 농학과 기타의 자연과학 (E) 기술과 공학의 5부분으로 되었다. 불어, 역사, 지리, 외국어, 수학, 자연과학 등 여러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 質的 수준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바카로레아가 전통적으로 회랍어와 라틴어, 철학 등 고전적인 과목만을 응시 과목으로 한 것은 그 시험의 응시 기회를 대중에게 제한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라틴어나 회랍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소수의 人文系 학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바카로레아를 시험쳐서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高等教育의 기회에 대한 대중들의 요청, 산업사회에서의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의 중요성 등으로 시험과목과 대학의 門戶가 모두 개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바카로레아가 처음 실시된 이후 약 150여 년만에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된 것은 많은 점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이다.

독일의 成熟試驗, 즉 아마투어도 비슷한 개혁의 과정을 거쳤다. 1830년대부터 오랫동안 1년간의 단기 병역의 혜택을 독점해 온 독일의 김나지움은 회랍어와 라틴어를 獨占의으로 교수함으로써 그들의 특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호는 개방되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숙시험에 응시하여 대학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입학시험에서 하나 특기할 것은 '시험수업'이다. 독일은 프랑스, 영국과 마찬가지로 9~10살에 인문계 학교에 갈 학생과 실과계 학교에 갈 학생들이 갈라지는 것이므로 이 분류가 매우 조심스럽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독일 특유의 '시험수업(Probeunterricht)'이다. 기초학교 4년을 마치고 主要學校, 實科學校, 김나지움으로 진학할 때는 州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독일어, 산수, 鄉土科 등에 대한 1일 이상의 필기시험, 2~3일 동안의 시험수업을 한다. 기초학교와 김나지움의 교사들로 구성된 시험관들은 시험수업을 통해서 그 학생이 김나지움에 가서 학습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관찰하고, 학생이 우수한 능력을 보였을 경우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김나지움에 입학시킨다. 그러므로 학생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수업에서 그의 學習能力을 보여 주면 되는데, 이것은 인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독일인의 노력인 것이다. 대학 입학시험은 아니지만 중요한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영국에서는 10여 세에서 국가시험을 치뤄 학생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을 16~18세로 늦추어서 실시하는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스팅 센터'를 설치하여 개별적인 대학이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대신 '테스팅 센터'로 하여금 전국적인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험집단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로 개인의 學業成就度를 표시하는 표준화 점수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방법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V.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입학시험과 같이 특권과 불이익, 개인과 사회의 발전이 달려 있는 문제에는 그 基本的인 목적에 좇아서 끊임없이 改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위에서 능력을 공정하게 측정한다는 원리하에 실제로 입학시험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입학시험제도가 그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고 있는 課題와 방향을 몇 가지 시사하고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첫째, 입학시험이 능력을 측정한다고 할 때, 현재로서는 주로 暗記力이나 分析力, 思考力과 같은 知的인 면의 능력이 측정되고 있다. 지적인 능력 중에서도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보다도 지식의 암기나 이해와 같은 초보적인 능력이 주로 측정되고 있다. 사고력, 문제 해결력과 같은 능력의 측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동기, 태도, 가치관, 신념 등과 같은 정서적, 人格的인 면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도자로서의 資質 중에 인격적인 요소가 중대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둘째, 입학시험에서 능력을 측정할 때에 능력 이외의 요소, 즉 도시와 농촌의 지리적 요인,

남녀 성별의 요인, 가정적 배경 등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입학시험이 능력 있는 사람은 公正하게 選拔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에 공헌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셋째, 입학시험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 그치지 않고 중·고등학교와 국민학교, 또는 사회 일반의 교육의 방향이나 방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사회의 문화발전에도 관계가 있다. 입학시험이 지식의 暗記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기 쉬우며, 입학시험이 문제 해결력의 측정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學習 雰囲気의 형성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능력을 입학시험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 물론 각 대학의 獨特한 성격이 좀 손상되기는 하지만, 대학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수록 교육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優秀性의 여부를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合理的이 되는 것이다.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불합격되어 갈 곳이 없다면 국가적으로는 그만큼 손해가 된다. 歐美의 여러 나라들이 전국 단위로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